

걸그룹이 아프다... 잇단 건강 주의보

과도한 스케줄로 인한 체력 저하 등에 시달리고 있어

걸그룹 사이에 건강 주의보가 내려졌다. 과도한 스케줄 등으로 인한 체력 저하로 각종 부상에 시달리고 있다. 안쪽으로 스트레스까지 겹치면서 공항 장애 등 마음까지 병들고 있다.

◇**숨이 안잡히는 건강 이상 왜?**
소스뮤직은 그룹 '여자친구' 멤버 엄지가 건강상의 이유로 팀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5일 밝혔다. 최근 다리 통증으로 병원 검진을 받은 결과 좌측 대퇴부 봉공근 염좌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봉공근은 대퇴부를 가로지르는 가늘고 긴 근육이다. 걷거나 무릎을 쓰거나 하는 등의 움직임을 할 때 사용된다. 근육을 많이 쓰는 안무로 유명한 팀인 만큼 잇따른 스케줄로 무리가 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데뷔한 여자친구는 '유리구슬' '오늘부터 우리는' 등 연달아 히트곡을 내며 인기 걸그룹으로 성장했다. 큰 휴식 없이 활동을 이어왔다. 여자친구는 엄지가 완쾌될 때까지 소원 예린 은하, 유주, 신비 5인 체제로 활동하게 된다.

건강 이상으로 걸그룹 멤버들이 휴식을 취한 건 올해만 해도 여러차례다. 특히 그룹 걸그룹인 'EXID' 멤버 하니와 '걸스데이' 멤버 헤리는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한 장염과 뇌수막염 등으로 인해 병원 신세를 졌다.

신인 걸그룹도 예외가 아니었다. '에이프릴' 멤버 현주는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 중단을 선언했고 '씨엘씨' 멤버 권은빈은 데뷔 동시에 건강 이상으로 휴식을 취한 뒤 복귀하기도 했다.

◇**마음의 질병도 찾아와**
걸그룹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아들도 없다. 많은 인기를 누리지만, 그 만큼 항상 대중에 노출됐다. 이미지가 실추될까 항상 노심초사해야 하며 자칫 밋보이는 순간 수많은 악플에 시달려야 한다. 불안증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크롬엔터테인먼트는 '씨엘씨'의 그룹 '브레오팜' 멤버 소율이 공황장애로 팀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지난 4일 전했다. 최근 발매한 첫 정규앨범 '에블루션 팜'을 작업하면서 원인 모를 두통과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해 왔다는 것이다.

크롬은 소율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까 기대했으나 활동을 할수록 증세가 심해져 무대에 오르기 직전 일어사지도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됐다고 알렸다. 결국 병원에서 소율이 만성피로로 인한 공황장애 초기 증상으로 휴식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

마른 몸매를 요구당하는 걸그룹인 만큼 다이어트로 인한 후유증도 눈에 띄었다. 지난 8월 '오마이걸' 멤버 진이는 거식증으로 당분간 활동을 중단하겠다고 전했다.



소스뮤직은 그룹 '여자친구' 멤버 엄지가 건강상의 이유로 팀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5일 밝혔다.

걸그룹 멤버들에게 육체·정신적인 이상이 자주 찾아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불규칙한 생활 패턴에 음식물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도한 스케줄 소화 때문으로 요약된다. 여기에 아이돌 세계가 부침이 심한 만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긴장도 한몫한다. 하지만 이미 수년전부터 불거진 지적으로, 지금부터라도 아이돌 그룹 생태계를 서서히 바꿔나아가 한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뉴시스

대한체육회, 전국체전 참가선수·지도자 등 대상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향상 홍보·인지도 조사'

대한체육회는 오는 7일부터 충남 일원에서 열리는 제97회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 참가선수, 지도자, 학부모 등 4000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스포츠 인권향상 홍보 및 인지도 조사'를 한다고 6일 밝혔다.

지속적인 활동에도 스포츠 현장에서 여전히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13개 종목에 선정해 선수들에게 직접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홍보를 진행한다.

올해는 태블릿 PC를 이용한 참여형 게임을 개발해 어린 선수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자연스럽게 스포츠인권센터를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현장에서의 (성)폭력 실태가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에 대한 인지도 조사를 펼쳐 폭력실태와 개선도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009년부터 체육인이라면 누구나 신고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스포츠인권센터(서울 송파구 소재·02-4181-119)를 운영하고 있다.

/김민근기자

익산 선수단 205명, 제97회 전국체전 출전

충남 일원에서 열리는 '제97회 전국체육대회'에 익산선수단 205명(17종목)이 전북 '종합9위'를 목표로 출전한다.

전북은 2014년에 14위에 그쳤지만 2015년 10위로 반등에 성공한 만큼 올해는 한 단계 높은 9위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전북은 이번 체전에서 수영, 배구, 궁도, 펜싱에서 상위 입상을 기대하고 있다. 육상(필드), 농구, 유도, 체조, 배드민턴, 태권도에서 종합점수 1000점 이상을 획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육상 여자 일반부에 출전하는 익산시청 신소망(800m, 1500m)선수가 다관왕을 노리고 이일여고 탁구, 이리여고 펜싱 사브르는 단체종목 우승을 목표로 댈다.

익산시청 펜싱부는 남자 에베와 여자 사브르의 종목에 출전한다. 이번 전국체전에서도 전북의 목표인 '종합9위'에 일조하겠다는 일념으로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 경기력을 최대한 끌어올리려 매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또한 익산시청 육상선수단은 작년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 동메달 4개 등 총 8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전북의 10위 달성에 크게 기여한 만큼 올해도 좋은 성적을 거두어 익산시의 위상과 명성을 드높일 것으로 보인다.

/익산=장양원기자

아델, 또 다시 새 역사를 썼다

3집 '25' 미국 내 다이아몬드 앨범 획득 결정

영국 팝스타 아델이 또 다시 새 역사를 썼다.

미국 레코드 협회 RIAA(Recording Industry Association of America)에 따르면 최근 아델의 3집 '25'의 미국 내 다이아몬드 앨범 획득이 결정됐다. 지난해 11월 이 앨범이 발매된 이후 불과 10개월만이다.

음반판매량을 나타내는 앨범 인증 기준은 국가별로 상이한데 미국 기준 다이아몬드 앨범은 1000만장이다.

아델의 기존 히트 싱글 '롤링 인 더 딥'과 '침원 라이크 유' 등이 수록된 그녀의 전작 21(2011년 1월 발매)이 약 2년 만에 이룬 다이아몬드 진입을 이번 앨범으로 1년 이상 단축한 셈이다. 21은 현재 다이아몬드 앨범을 넘어선 약 1400만장을 기록 중인

다. 아델은 이에 따라 역대 88번째 다이아몬드 앨범의 주인공이자 2개의 다이아몬드를 달성한 아티스트가 됐다.

또 2개의 다이아몬드를 달성한 여성 아티스트 반열에 합류했다. 같은 기록을 가진 셀린 디온,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 브리트니 스피어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됐다. 21세기 이후의 여성 아티스트로서는 유일하다.

말레니엄 이후 이 다이아몬드 그룹에 입성한 앨범은 단 12장에 불과하다. 21은 2000년대 중반 급속도로 성장한 디지털 음악 시장의 벽을 깨고 여사의 컨디션(Confessions)(2004) 이후 6년 만에 다이아몬드 획득에 성공했다. 동시에 21세기 최다 판매고를 자랑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미국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아델 3집 '25' 미국 내 다이아몬드 앨범 획득 기념 행사.

21은 또 현재까지 빌보드 200 앨범 차트 내에 283주간 머물고 있는 스테디셀러다. 인구학적 통계로 봤을 때 미국 국민 22명 당 1명 꼴로 21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또 3주 연속으로 100만장 이상의 판매량을 기록하며, 3주 차에 500만장, 2016년 2월 집계에서는 다이아몬드에 근접하는 기록인 800만장을 기록한 바 있다.

/뉴시스

소외계층 청소년 대상 '리더십 축구교실' 발대식

2002 한일월드컵 4강 진출의 주역들이 소외계층 이들을 위해 댔다.

박항서 전 상무 감독, 김남일, 김태영 등은 6일 인천에서 소외계층 청소년 60명을 대상으로 '리더십 축구교실' 발대식을 가졌다.

2002 월드컵 당시 수석코치였던 박 전 감독은 오는 11월까지 2개월 동안 축구를 좋아하는 소외계층 청소년 약 400명을 대상으로 대한체육회와 함께는 박항서 리더십 축구교실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탈북가정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다.

박 전 감독은 "앞으로도 은퇴 축구선수들과 함께 소외계층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전했다.

'박항서 리더십 축구교실'은 대한체육회 행복나눔 스포츠교실 사업의 일환으로 동아시아스포츠진흥회가 주최·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후원한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